제11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사업계획서

2019. 1

굿네이버스

Ⅰ 대회 소개

❑ 대회 목적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2009년 1회 대회부터 전국 정부부처 및 지자체, 교육기관(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과 협력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나눔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전쟁과 가난, 질병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고, 인종, 종교, 사상과 지역을 초월하여 지구촌 문제와 이슈들에 대해 인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과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갖고 실천하는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교육용 영상을 통해 지구촌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해하며, '희망편지'를 작성하여 나눔의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세계시민' 양성을 위해 진행되는 전국대회입니다.

❑ 대회 개요

제11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 기 간 : 2019년 3월 1일 ~ 5월 31일 (약 3개월 간)
- 대 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4,400개교 2,300,000명 참여 예상
- 주 최 : 굿네이버스
- 후 원 :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MBC, EBS, 한국교원대학교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
- 주요내용

① 교육활동 : 영상교육 – 해외 개발도상국가(아시아-방글라데시) / 온라인교육

② 실천활동 :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

③ 가정참여 Advocacy 이벤트 및 캠페인

④ 공식 홈페이지 : **hope.gni.kr**

❑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참여현황

1) 제1회 ~ 제10회 대회 참여현황

- 1회 ~ 10회 누적 참여 인원 : 35,019개교 20,612,314명

구분	1회(2009년)	2회(2010년)	3회(2011년)	4회(2012년)	5회(2013년)
개교	2,037개교	2,111개교	2,413개교	3,039개교	3,929개교
인원	1,301,025명	1,619,852명	1,764,222명	2,061,971명	2,385,406명
구분	**6회(2014년)**	**7회(2015년)**	**8회(2016년)**	**9회(2017년)**	**10회(2018년)**
개교	4,018개교	4,084개교	4,423개교	4,471개교	4,494개교
인원	2,216,798명	2,281,406명	2,342,140명	2,350,564명	2,288,930명

2) 2018년 제10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참여현황

교육청명	참여학교 (개교)	참여 학생(명)	시상 현황(개)					
			교육감상	교육장상	지자체장상	이외	소계	비고
서울특별시	537	376,461	11	162	77	27	277	
인천광역시	243	146,484	20	90	9	24	143	
울산광역시	110	56,398	3	7	4	21	35	
부산광역시	208	110,885	2	18	45	8	73	
경기도	956	600,414	8	239	172	9	428	
강원도	368	81,407	4	72	0	10	86	
충청북도	181	71,596	3	48	52	41	144	
충청남도	460	189,247	9	92	33	107	24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포함
전라북도	182	79,832	15	59	35	0	109	
전라남도	305	147,992	15	123	70	10	218	광주광역시 포함
경상북도	547	241,352	11	240	265	263	779	대구광역시 포함
경상남도	290	150,517	3	46	58	29	136	
제주특별자치도	107	36,345	13	30	0	25	68	
총계	**4,494**	**2,288,930**	**117**	**1,226**	**820**	**574**	**2,737**	

❑ 대회 기대효과

○ 나눔인성교육을 통한 '세계시민 양성'

-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는 교육영상을 통해 지구촌 이웃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희망편지작성, 나눔 실천 활동을 통해 지구촌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가짐을 겸비한 세계시민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가족 응집력 강화 및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

-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이해·소통·지도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교육적으로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여 가족 간 응집력을 강화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제고 및 나눔문화 확산

-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는 빈곤, 아동노동, 교육권리 등 지구촌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연결하여 대회를 진행하고, advocacy 활동을 진행하여 참여 학생·가족·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을 바탕으로 지구촌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적극적인 세계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Ⅱ 대회진행 계획

❑ 대회일정

일시	추진내용
2019년 1월~2월	-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협조공문 접수
2019년 3월 1일	-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별 관할학교 공문배포
2019년 3월~5월	- 제11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 학교별 행사진행
2019년 5월 31일	- 제11회 굿네이버스 희망편지쓰기대회 신청마감
2019년 6월 초	- 지역심사(1차~4차)
2019년 6월 말	- 본선심사(5차~6차)
2019년 7월	- 전국 시도교육청별 시상식 진행
2019년 8월	- 해외자원봉사활동 진행

❑ 대회 진행내용

1) 진행 절차

Step 1. 세계시민교육

- 교육영상 : 가정에서 지구촌 이웃들의 어려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교육 영상자료 제공

▽

Step 2. 희망편지쓰기 및 이벤트 참여

- 실천 활동 : 가족이 함께 유튜브 또는 희망편지쓰기대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영상을 시청하고 제공된 편지지에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

▸ 온라인 이벤트 참여 : 미나를 응원하는 " 희망톡톡챌린지송" 따라하기

▽

Step 3. 희망편지쓰기대회 심사

- 지역심사(1~4차) : 교육전문위원 및 굿네이버스 직원을 통한 전국 교육지원청별 심사 실시(심사기준 의거)
- 본선심사(5~6차) : 전국교육전문위원, 대학교수, 작가, 굿네이버스 직원을 통한 전국 교육지원청별 심사 실시(5~6차)
- 시도교육청별 시상식 : 전국 시도교육청별 시상식 진행

▽

Step 4. 해외자원봉사

- 대 상/최우수상 : 희망편지쓰기대회 전국대회 수상 학생 및 보호자 (전국수상자 약 20명 해외봉사 진행 예정)

- 해외자원봉사 활동내용
  - ▸ 굿네이버스 해외사업장 방문 (아시아지역)
  - ▸ 희망편지쓰기대회 우수작 전달
  - ▸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체육대회, 미술활동, 한국문화 소개 등) 실시
- 사후활동 계획
  - ▸ 방문기(사진, 일기, 방문 소감 등) 작성 및 홍보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효과 및 전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시상 계획

1) 심사개요

○심사기간 : 2019년 6월 1일(토) ~ 6월 21일(금)

○심사 절차

지역심사(1차~4차)		본선심사		최종심사
지역심사위원	▷	전문심사위원	▷	전문심사위원 (교수, 작가, 교육전문위원 등)

2) 전국대회 시상내역

시상내역		시상인원
대상	외교부 장관상	2명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1명
	보건복지부 장관상	2명
	고용노동부 장관상	2명
	여성가족부 장관상	2명
최우수상	MBC 사장상	2명
	EBS 사장상	2명
	굿네이버스 회장상	6명
최우수지도자	굿네이버스 회장상	1명

3) 지역대회 시상내역

시상내역		시상인원	비고
우수아동 및 지도자	교육감상, 교육장상, 시·도지사상 등	약간명	제안 진행中
* 지역시상 내역 및 일정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Ⅲ 대회진행 참고자료

❑ 2018년 제10회 희망편지쓰기대회 대표 사례 아동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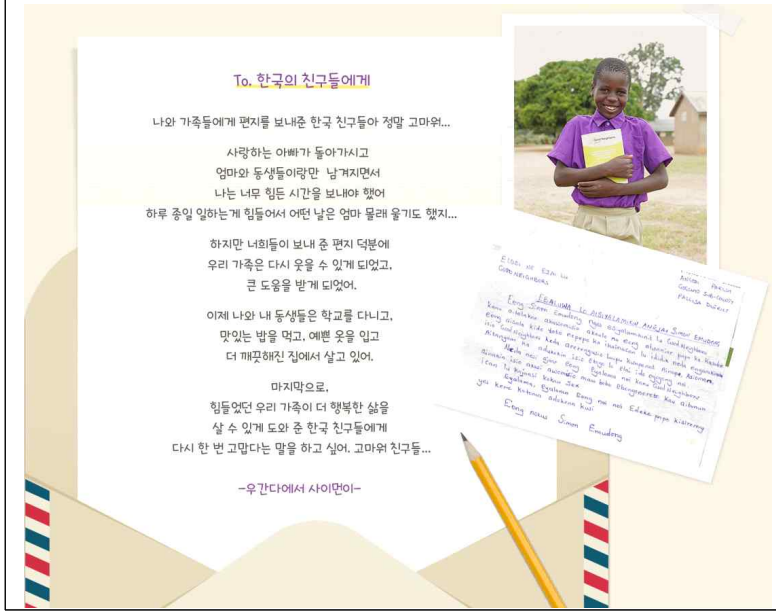
의사를 꿈꾸는 아이, 사이먼

제10회 희망편지쓰기대회의 주인공 사이먼은 3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아버지 대신, 세 동생들과 아픈 어머니를 위해 매캐한 먼지와 돌 부스러기들이 온종일 뿌옇게 날리는 채석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시간을 꼬박 일해야 하루 200원 남짓의 돈을 벌 수 있는 사이먼. 사이먼의 꿈은 이루어 질 수 있을까요.

▽

After

다시 꿈꿀 수 있게 된 10살 소년 사이먼



❑ 2018년 제10회 희망편지쓰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

1) 2018년 제10회 희망편지쓰기대회 시상식

- 강원지역 외 5개 지역 시상식 진행

2) 2018년 제10회 희망편지쓰기대회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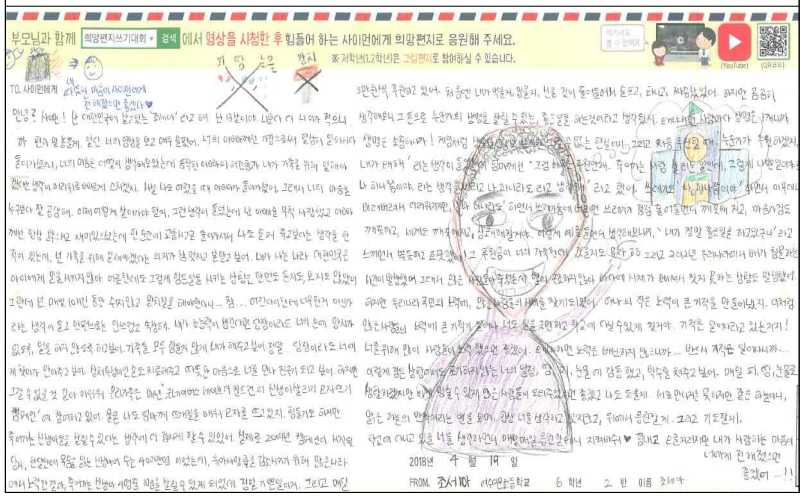
- 서울지역 외 1개 지역 전시회 진행

❑ 2018년 제10회 전국대회 대상 희망편지쓰기대회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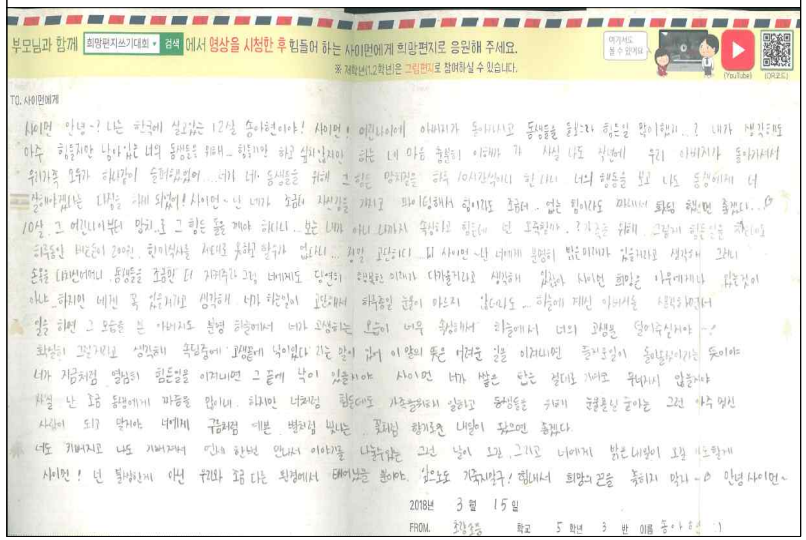
외교부장관상 서울문정초등학교 3학년 김00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힘들어 하는 사이먼에게 그림편지 & 희망편지로 응원해 주세요.
※ 저학년(1,2학년)은 그림편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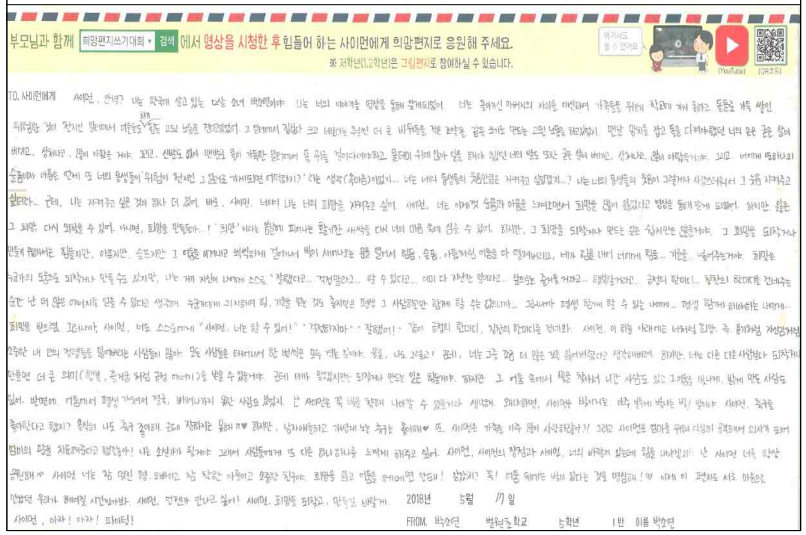
외교부장관상 여수여문초등학교 6학년 조00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힘들어 하는 사이먼에게 희망편지로 응원해 주세요.
※ 저학년(1,2학년)은 그림편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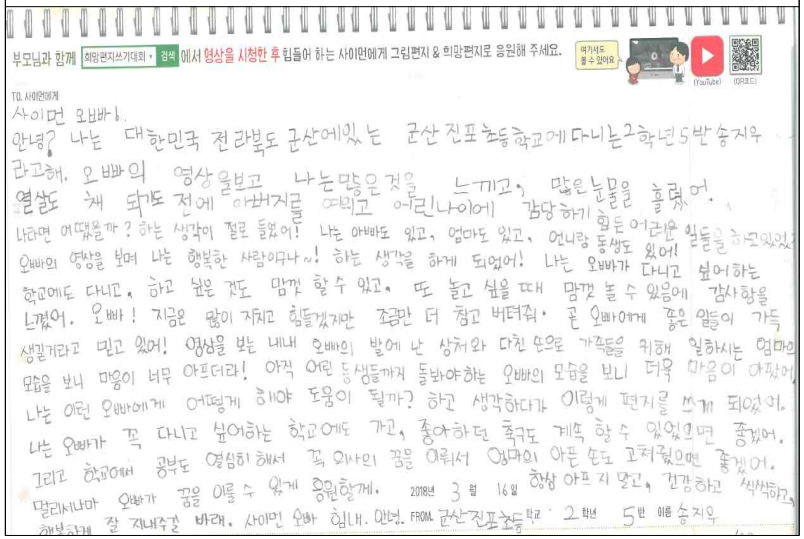
문화체육부장관상 초량초등학교 5학년 송00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힘들어 하는 사이먼에게 희망편지로 응원해 주세요.
※ 저학년(1,2학년)은 그림편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벌원초등학교 5학년 박00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힘들어 하는 사이먼에게 희망편지로 응원해 주세요.
※ 저학년(1,2학년)은 그림편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상 군산진포초등학교 2학년 송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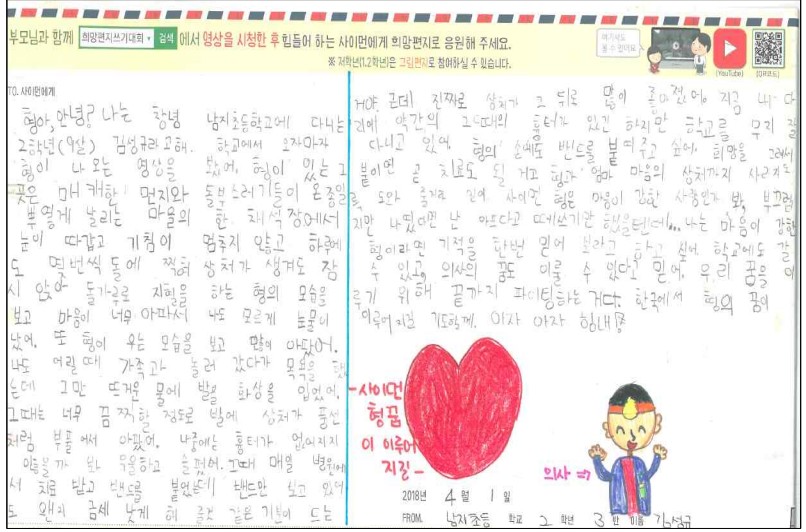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힘들어 하는 사이먼에게 그림편지 & 희망편지로 응원해 주세요.

TO. 사이먼에게

사이먼 오빠!

안녕? 나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군산에있는 군산 진포 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 5반 송지우라고해. 오빠의 영상을보고 나는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눈물을 흘렸어. 열살도 채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하고있었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 나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언니랑 동생도 있어! 오빠의 영상을 보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나는 오빠가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에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도 맘껏 할 수 있고, 또 놀고 싶을 때 맘껏 놀 수 있음에 감사함을 느꼈어. 오빠! 지금은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버텨줘. 곧 오빠에게 좋은 일들이 가득 생길거라고 믿고 있어! 영상을 보는 내내 오빠의 발에 난 상처와 다친 손으로 가족들을 위해 일하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아직 어린 동생들까지 돌봐야하는 오빠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 나는 이런 오빠에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나는 오빠가 꼭 다니고 싶어하는 학교에도 가고, 좋아하던 축구도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꼭 오빠의 꿈을 이루어서 엄마의 아픈 손도 고쳐줬으면 좋겠어. 멀리서나마 오빠가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할게. 2018년 3월 16일 항상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주길 바래. 사이먼 오빠 힘내. 안녕. FROM. 군산진포초등학교 2학년 5반 이름 송지우

고용노동부장관상 남지초등학교 2학년 김00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힘들어 하는 사이먼에게 희망편지로 응원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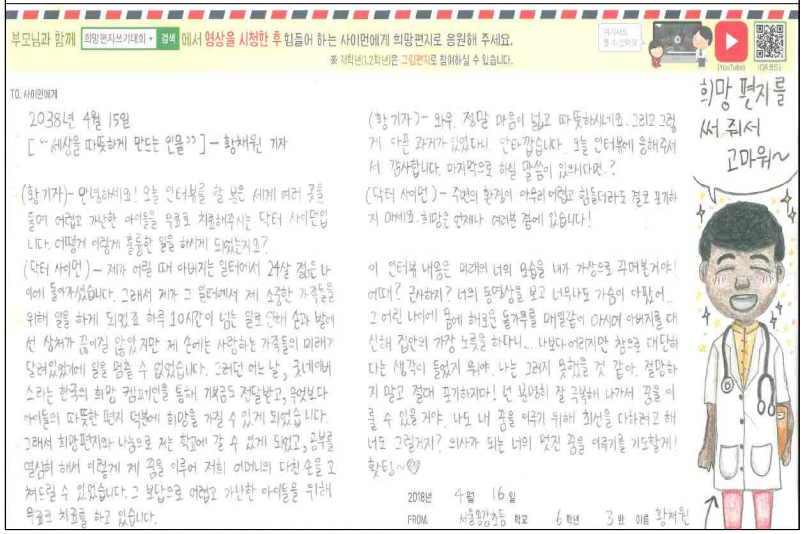
※ 저학년(1,2학년)은 그림편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O. 사이먼에게

형아, 안녕? 나는 청년 남지초등학교에 다니는 2학년(9살) 김성규라고해. 학교에서 오가다가 형이 나오는 영상을 봤어. 형이 있는 그곳은 마 캐나 먼지와 돌보러 기들이 온종일 뿌옇게 날리는 마을의 한 채석 장에서 눈이 따갑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하루에도 몇번씩 돌에 찍혀 상처가 생겨도 잠시 앉아 돌가루로 지형을 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또 형이 우는 모습을 보고 맘이 아팠어. 나도 어릴 때 가족과 놀러 갔다가 목욕을 했는데 그만 뜨거운 물에 발을 화상을 입었어. 그때는 너무 끔찍한 정도로 발에 상처가 흉신처럼 부풀어 아팠어. 나중에는 흉터가 없어지지 않을까 봐 무울하고 슬펐어. 그때 매일 병원에서 치료 받고 밴드를 붙였는데 밴드만 싫고 있어도 왠지 금세 낫게 해 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상처가 그 뒤로 많이 좋아졌어. 지금 내 다리에 약간의 흉터가 있긴 하지만 괜찮고 무지 잘 다니고 있어. 형의 손에도 밴드를 붙여주고 싶어. 희망을 그려 붙이면 곧 치료도 될 거고 형과 엄마 마음의 상처까지 사라질 거야. 슬퍼 말고 힘내. 사이먼 형은 영웅이 감탄 사람인가 봐. 부끄럼지만 나 있어면 난 아프다고 떼쓰기만 했을텐데... 나는 마음이 강한 형이라면 기적을 한번 믿어 보라고 하고 싶네. 학교에도 갈 수 있고, 의사의 꿈도 이룰 수 있다고 믿어.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파이팅하는 거다. 한국에서 형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할게. 아자 아자 힘내!

2018년 4월 1일 FROM. 남지초등 학교 2 학년 3 반 이름 김성규

고용노동부장관상 서울용강초등학교 6학년 황00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힘들어 하는 사이먼에게 희망편지로 응원해 주세요.

※ 저학년(1,2학년)은 그림편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O. 사이먼에게

2038년 4월 15일

["세상을 따뜻함게 만드는 인물"] - 황채원 기자

(황 기자) -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를 할 분은 세계 여러 곳을 돌며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시는 닥터 사이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요?

(닥터 사이먼) -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길터에서 24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길터에서 저 소중한 가족들을 위해 일을 하게 되었죠. 하루 10시간이 넘는 일을 안해 손과 발에선 상처가 끊이질 않았지만 제 손에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미래가 달려있기에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나에서 스라는 한국의 희망 캠페인을 통해 기부금도 전달받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따뜻한 편지 덕분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편지와 나눔으로 저는 학교에 갈 수 없게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렵게 게 꿈을 이루어 저희 어머니의 다친 손을 고쳐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어렵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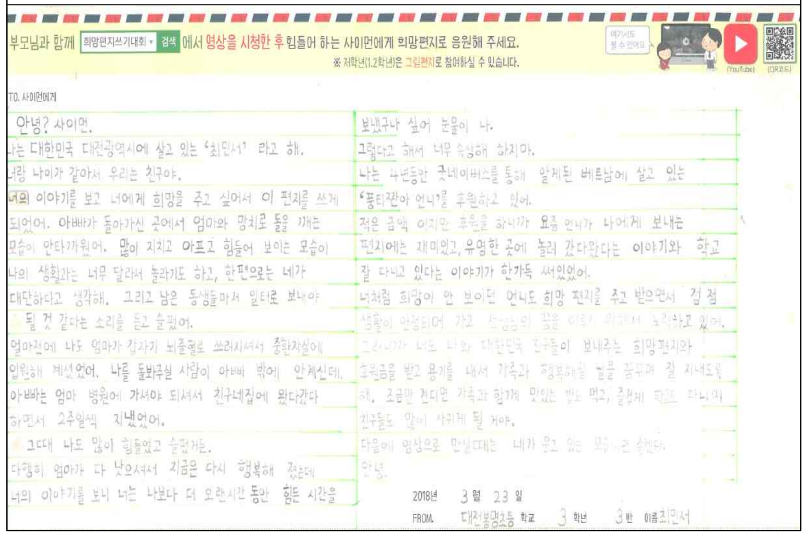
(황 기자) - 와우. 정말 마음이 넓고 따뜻하시네요. 그리고 그렇게 아픈 과거가 있었다니 안타깝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닥터 사이먼) -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미래의 너의 모습을 내가 가상으로 꾸며본거야! 어때? 근사하지? 너의 동영상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 그 어린 나이에 몸에 해로운 돌가루를 마일같이 아시며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다니... 나보다 어리지만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 절망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마! 넌 분명히 잘 극복해 나가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나도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해 너도 그럴거지? 의사가 되는 너의 멋진 꿈을 이루기를 기도할게! 화팅~♡

2018년 4월 16일 FROM. 서울용강초등 학교 6 학년 3 반 이름 황채원

여성가족부장관상 대전봉명초등학교 3학년 최00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힘들어 하는 사이먼에게 희망편지로 응원해 주세요.

※ 저학년(1,2학년)은 그림편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TO. 사이먼에게

안녕? 사이먼.

나는 대한민국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최민서' 라고 해.

나랑 나이가 같아서 우리는 친구야.

너의 이야기를 보고 너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 아빠가 돌아가신 곳에서 엄마와 망치로 돌을 깨는 모습이 안타까웠어. 많이 지치고 아프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나의 생활과는 너무 달라서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은 동생들마저 일터로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소리를 듣고 슬펐어.

얼마전에 나도 엄마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었어. 나를 돌봐주실 사람이 아빠 밖에 안계신데, 아빠는 엄마 병원에 가셔야 되셔서 친구네집에 왔다갔다 하면서 2주일씩 지냈었어.

그때 나도 많이 힘들었고 슬펐지요.

다행히 엄마가 다 낫으셔서 지금은 다시 행복해 졌는데 너의 이야기를 보니 너는 나보다 더 오랜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싶어 눈물이 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 하지마.

나는 유튜브와 카네이버스를 통해 알게된 베트남에 살고 있는 '풍티짠아 언니를 후원하고 있어.

적은 금액 이지만 후원을 하니까 요즘 언니가 나에게 보내준 편지에는 재미있고, 유명한 곳에 놀러 갔다왔다는 이야기와 학교 잘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가득 써있었어.

너처럼 희망이 안 보이던 언니도 희망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점점 생활이 안정되어 가고 스승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와 대전인데 친구들이 보내주는 희망편지와 후원금을 받고 용기를 내서 가족과 행복하게 늘 꿈꾸며 잘 지내도록 해. 조금만 참자면 가족과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즐겁게 학교 다니며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될 거야.

다음에 영상으로 만날때는 내가 웃고 있는 모습 보여줄게.

안녕.

2018년 3월 23일 FROM. 대전봉명초등 학교 3 학년 3 반 이름 최민서

여성가족부장관상 화천초등학교 5학년 박00

부모님과 함께 희망편지쓰기대회 검색 에서 영상을 시청한 후 힘들어 하는 사이먼에게 희망편지로 응원해 주세요.

※ 저학년(1,2학년)은 그림편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YouTube 인코드

TO. 사이먼에게

안녕! 사이먼! 나는 대한민국 작은 시골 마을(강원도 화천)에 살고 있는 박영욱이야.
나는 가족들과 너에 관한 영상을 보고 왔어. 우리도 너희 처럼 힘들고 아팠던 때가 있었거든. 때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는 우리 나라 위에 있는 북한이란 나라와 전쟁을 벌였어. 많은 사람이 죽고, 우리와 같은 어린이들은 고아가 되었지.
마치 너가 채석장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먹고 살기 위해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지. 그런데 몇 박의 한 가지,
전쟁 속에서 다른 큰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 이것도 마치 우리 한국의 어린이들이 너에게 희망 편지 써 보내는 것과 비슷해.
그런데, 말이야 이 희망 편지가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 너에게 셀 수 없는 많은 아이들이 너를 돕고 싶어 하는 거야! 생각 해 봐,
두근두근 하고 설레지 않니? 이제는 더 이상 망치질 하는 손 말고, 연필을 꼭 잡은 너의 손이 벌써부터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네가 유독 좋아하는 축구도 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해서 회사가 되어 너의 어머니의 꿈도 말끔히
고칠 수 있을 거야. 만약 너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신 다면, 매우 기뻐하실 거야! 채석장에서의 딱딱하고 큰은 모습 말고,
학교를 다니면서 태양처럼 빛나는 사이먼의 밝은 미소를 빨리 보고 싶어. 비록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같은 하늘, 같은 땅에서 마음 만큼은
빛처럼 빠르게 전해질 거야. 그리고 여태 동안 매 년 나왔던 아이들도 다 잘 살고 있어! 활기찬 생활, 학교도 다니고...
아마 사이먼도 그렇게 될 거야! 아, 맞다! 사이먼의 꿈이 의사라고 했지? 내 꿈은 판사야. 우리 서로 열심히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자. 나, 그리고 한국의 친구들 모두 사이먼의 작은 희망을 큰 희망으로 부풀려 줄게! 사이먼, 화이팅!

2019년 3월 15일

FROM. 화천초등학교 5학년 3반 이름 박영욱